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관에서 제2회 한국 중앙아시아 문화장관들이 공동 합의문 서명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화전당, 중앙아시아 '문화광맥' 캔다

**한·중앙아시아 문화장관회의 성과
신화·설화·기록유산 등 발굴
영화·만화 등 창작 모티브 활용
전문가 교류·국민 소통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중앙아시아의 신화·설화, 기록유산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창작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들 자원은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공연예술 등 다양한 부문에서 창작의 모티브를 제공하는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5일 문화전당에서 제2회 한·중앙아시아 문화장관회의를 열고 문화교류를 약속하는 '한·중앙아시아 장관회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문화장관이 참석했다.

합의문은 ▲문화유산 보존·활용협력 ▲문화예술 전문가 잠재력 강화 ▲상호 문화이해의 증진 ▲공동 창작·제작 활성화 ▲문화장관회의 정례화 등 5개 부문, 13개 조항으로 작성됐다. 합의문에 따라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는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아시아의 문화유산과 기록유산의 복원,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등도 공동 추진한다. 각국이 보유한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해서다. 중앙아시아지역은 구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곳으로 원형문화의 보고로 알려진 곳이다. 특히 영웅신화와 설화, 유목문화의 원형이 풍부한 지역으로 '문화광맥'으로 통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문화전당은 재원을 투입해 이들 국가의 문화원형을 발굴하고 이들 문화자원을 문화전당의 창작재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예술 부문 전문가들의 교류를 바탕으로 문화적 잠재력을 키우는 데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연수생 초청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공연예술·전시·문화유산·문화행정 분야의 인력 파견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들 국가들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민들 간 소통 확산이 아시아 시대를 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온라인상의 공유 공간' 등 각 나라의 국민들이 상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스토리를 구성하는 작가와 화가들이 모여 작품을 발표하는 '아시아 스토리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아시아 스토리 네트워크협의체'를 구축해 아시아 신화와 민담·영웅서사시 등을 바탕으로 한 동화 제작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들 국가들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예술의 발전 성과를 알리기 위해 오는 2017년 '한·중앙아시아 문화관광축제'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한국·중앙아시아 문화장관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영삼 전 대통령 '통합·화합' 정신 구현

상도동·동교동, DJ·YS 기념사업 추진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사실상 유언인 '통합·화합' 정신을 구현할 기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손을 맞잡을지 주목된다.

일단 분위기는 무르익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장래 기간임을 감안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공동사업 계획은 없지만,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함께 몸담은 민주화추진협의회(이하 민주협)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협은 국가장이 끝나고 오는 30일 송년회를 추진하고 있어 이 자리에서 본격적인 물꼬가 터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상도동계 마지막 세대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25일 "전날에도 서울 시청 분향소에서 동교동계 인사들이 함께 조문객을 맞으며 'DJ(김대중)와 YS가 남긴 정치적 업적을 기려야 하는데 우리가 갈라져서야 되겠느냐'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송년회에서 기념사업이 논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전했다.

동교동계 이훈평 전 의원의 "이번에는 송년회의 의미가 더 크다"며 "두 분(DJ·YS)이 돌아가신 이후 우리들의 좌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큰 것은 그 양반이 남겨놓은 족적을 발전시키자는 것"이라 말했다.

이런 가운데 YS의 '통합·화합'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념사업 구상도 나오고 있다.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인 김수환 전 국회의장은 "통합과 화합이라는 YS의 정신을 살려가며 앞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신문 보도를 보니 YS와 DJ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 많은데 이런 사진들을 수집해 전시하는 사업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김영삼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남북 분단'과 '영호남 분단'이 있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사진 전시회를 통해 이런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과거 2009년 DJ 서거를 계기로 그 해 11월 YS 주재로 상도동계와 동교동계 인사가 만찬을 했고, 이듬해 해에는 22년만에 '교차세배'를 하는 등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시도를 했던 전례에 비추면 이번에도 YS의 서거를 계기로 양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오늘날 여야로 각각 분리된 정치현실을 고려할 때 공동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동교동계 막내"격인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민주협을 부활하자고 하는 데 잘 안된다"며 "사회가 여야로 나뉘는 상황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며 요원한 얘기"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국가장 영결식 준비 분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을 하루 앞둔 25일 국회 본관 앞에서 관계자들이 관련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車 100만대 조성사업 내년 예산 반영을”

지역 경제계 호소문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보완 의견이 나온 것과 관련 지역 경제계가 내년 정부 예산에 관련 사업비 반영을 요구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5일 "광주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성공을 위해 내년 국비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이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상하는 이날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광주시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과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보완 요구로 내년 정

부 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장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국민 대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 정부 예산에 반드시 관련 사업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국가 제조업의 제도약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자동차산업 육성을 통해 광주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광

주 자동차산업발전추진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에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이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발전 핵심 공약이다"며 "하지만 예비타당성 보완 결정을 이유로 내년 예산에 사업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지역이 경제적 소외, 정치적 소외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있으며 내년 예산 반영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빛 속 추모 발길 '36년 악연' 전두환 직접 조문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나흘째인 25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밤새 내린 비에도 고인의 서거를 추모하는 발걸음이 이른 아침부터 이어졌다.

차남 현철씨는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영결식과 관련해 가족회의를 하며 분주한 오전을 보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변호사는 병환이 깊음 것으로 알려진 아버지를 대신해 빈소를 찾은 10분간 문상했다. 한국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굴곡의 관계로 얽힌 두 정치 지도자의 아들들은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짧은 위로를 주고받았다.

파비앙 페는 주한 프랑스대사도 이른 오전 빈소를 찾아 방명록에 "프랑스는 오늘 우리의 친구이자 위대한 민주주의자를 잃었다"고 썼다.

문민정부 초대 청와대 공보수석을 지낸 이재제 전 한나라당 의원에 빈소를 찾아 "김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4·19묘지를 처음 방문하시고는 '민주화의 역사를 만든 곳이 초라하다'고 하셨다"며 "얼마 뒤 묘소가 국립묘지로 승격됐고, '4·19의 거'가 '4·19혁명'으로 승화돼 헌법 전문에 들어갔다"고 회상했다.

이날 오전에는 김주현 법무부 차관, 이재우 김앤장 대표 등 법조계 인사들이 조문행렬에 동참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에 경호관 2명을 대동한 채 빈소에 입장, 방명록에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떡갈비 12,500원	8,500원	5,000원
떡갈비, 떡볶이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유한바이오 **글리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M NAVER 백세생활건강 ▼ 글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시설 활용 사업제한 공모 공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부지 및 시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동북아를 대표하는 해양관광 리조트로 조성할 사업제한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11월 26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이사장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 근거
 - 가. 사업의 목적: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의 부지 및 시설 - 건물을 활용하여 동북아를 대표하는 해양관광 리조트로 조성함으로써 박람회장을 남태평양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함.
 - 나. 사업추진근거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2015-57, '15.5.29)
2. 사업개요
 - 가. 사업명: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시설 활용 사업
 - 나. 사업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수정동 일원
 - 다. 사업대상 및 규모: 사업대상 및 규모: 부지(나대지) 및 시설 - 건물(비오, 스키타워,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 국제관, 주제관 등) - 부지면적 222천㎡ / 건물 연면적 141천㎡
 - 라. 사업내용: 박람회장 존치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해양관광객지시, 마린나, 시설, 전시시설 - 상업시설 등을 설치하여 세계적인 해양관광 리조트 조성 - 운영
 - 마. 사업기간: 2021년 활성화를 목표로 2019년까지 조성 - 개발
3. 사업참여조건 및 제안시 유의사항
 - 가. 사업제한자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요건을 구비한 자이어야 함.
 - 나. 사업제한자는 본 사업의 사업부지내에 있는 한국, 엑스포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 -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제안하여야 함.
4. 사업계획서 제출 및 평가
 - 가. 사업계획서 작성은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나. 사업계획서 제출
 - (1) 제출기한: 12월 24일(목) 12:00까지
 - (2) 제출장소: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경영기획부(국제관 C동 2층)
 -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함.
 - 다.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절차
 - (1) 과제심사: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등을 평가
 - (2) 부지·시설 일괄 매입 사업제한자의 경우 구역별 매입 - 입차 사업제한자보다 우선 평가함.
 - (3)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사업계획서 평가: 12월 28일(월) ~ 12월 29일(화) 예정
 - (5) 사업자후보자 선정통보: 12월 29일(화) 예정
5. 기타사항
 -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나. 기타 문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경영기획부(061-659-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